



완성차 5개사, 새해 맞아 신차 본격 출격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새해를 맞아 본격 신차 출시에 나섰다.

4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올해 첫 신차인 신형 벨로스터다. 현대차는 신형 벨로스터를 오는 8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북미오토쇼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신형 벨로스터는 기존 모델보다 스포티함이 강조된 게 특징이다. A 필라가 조금 더 뒤로 이동해 후드가 길어져 차량의 앞 부분이 길어지고 차체 루프를 낮춰 날렵한 쿠페 스타일이 돋보이게 디자인했다. 인공지능 음원 서버를 통해 음악 정보를 알려주는 '사운드하운드' 기능도 국내 최초로 탑재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는 올해 첫 신차로 세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2월 중 출시되는 신차 준중형 세단 K3는 기존 모델을 대체인지만 모델로 고급스러움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상반기 중에는 대형세단 K9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쌍용자동차는 완성차 5개사 중 처음으로 신차를 출시했다. 쌍용차는 지난 2일 신형 픽업트럭인 '넥스톤 스포츠'의 외관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시작했다.

쌍용차는 3일에는 기존 코란도 투리스모의 미니어처인 모델인 '2018 코란도 투리스모'를 출시했다. 출시 5년 만에 디자인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10만 6677대를 판매해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내수 실적을 올렸다. 쌍용차는 올해도 SUV로 내수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르노삼성자동차와 GM대우도 상반기 중 신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상반기에 소형 해치백 '클리오'를 내놓는다. 클리오에는 르노의 독자적 엠블럼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출시를 계획했다. 유럽시장에서의 인기로 불량 확보에 차질을 빚어 출시가 연기됐다. 이미 전 세계에서 1300만대 이상 판매된 클리오가 '해치백의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반기 중 출시될 중형 SUV 쉐보레 에쿠노스는 GM대우의 아심작이다. 에쿠노스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만대 이상 판매되는 인기 SUV다. 캡티바의 후속 모델 격인 에쿠노스는 미국 GM이 개발을 이끈 모델로 직수입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대형 SUV인 트래버스 역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편의점 “정부 13만원 지원은 4대보험 부실 보완책 아냐?”

점주 “정부 지원책, 자영업자에 큰 도움 안돼”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편의점 1곳을 운영 중인 점주 A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 지원 신청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책이 점주들에게 실제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도 지난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노동자 1명 당 월 13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

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다.

이처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은 나머지 3개 보험과도 연동돼 있어 이 같은 비용 부담을 꺼렸던 점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고용보험은 4대보험과 연동돼 있다. 통합장수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점주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정부 지원보다 커진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정부가 지원수준을 60%에서 80~90%로 상향한 것도 점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계 회장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원을 상향한다는 데 그럼 기존 근무자를 자르고 신규 가입자를 고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3만원 지원책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를 가입시키려는 취지”라며 “이는 4대보험의 부실을 보완하려는 정책이지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편의점 성장률 한 자릿수로 꺾일 듯

“평균 매출 성장률, 회복세로 전환되어야”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편의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편의점 산업 업황도 신규 출점 축소 등으로 인해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하나금융투자는 2015년 이후 매년 두자리 수 고성장세를 보이던 편의점 업종은 올해 지난해 대비 8.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 업종은 1인가구 증가, 점포수 확장 등의 영향으로 2015년 29.6%, 2016년 18.4%, 2017년 13.4%(예상) 두자리수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8.1%, 2019년 7.7%, 2020년 7.3% 등 성장률은 한 자릿수

에 그칠 전망이다.

점포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평균점포 매출 성장률이 회복되어야 바람직하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편의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점포수는 13.7% 증가했지만, 평균 점포 매출은 3.1% 감소했다. 이런 흐름은 점포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도 2분기(4~6월)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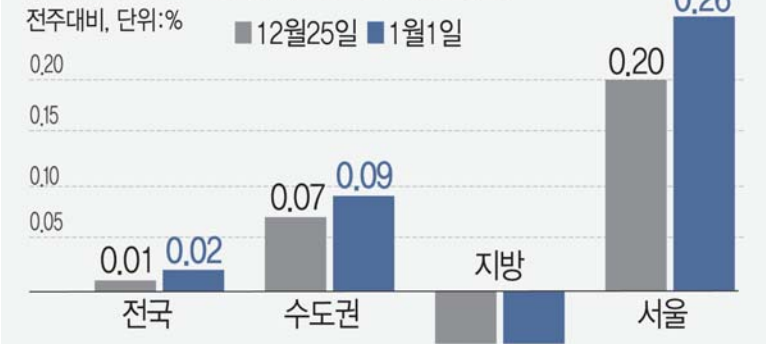
박중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편의점은 2018년 1분기(1~3월)까지 업황 둔화와 최저임금 영향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추세적인 주가 반

등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8년 2분기 점포당 평균 매출 성장률이 회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 BGF 등의 기업들은 원가율 개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편의점 부문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편의점 외 사업부에서도 실적 개선을 통해 전체 영업이익의 감소분을 상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시작했다. 현재 전체 편의점의 30%는 한 점주가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다점포이다. 다점포 점주는 평균 2.5개의 편의점을 운영중이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전세가격지수 증감률 전주대비,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새해 첫 주 아파트값, 매매가 오르고 전셋값은 떨어졌다

새해 첫 주 전국 아파트시장은 매매가격은 오름세, 전세가격은 하락세로 시작했다.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일 기준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4% 하락했다. 전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폭은 0.01%포인트, 전세가격 하락폭은 0.01%포인트 확대됐다.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해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 마지막주에 상승전환한 뒤, 이번주에는 상승세가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올해에는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데다 4월에는 양도세 증과제도가 시행된다. 더불어 보유세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올초부터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지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전국 평균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전주(0.20%)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26% 올랐다. 서울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도 전주(0.07%)보다 상승세가 커진 0.09% 올랐다.

지방(-0.05%)은 전주 하락폭을 이어갔다.

대전과 대구는 상대적으로 공급은 적지만 화력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부산은

내년까지 예정된 대규모 신규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모든 구에서 보합 또는 하락했다.

주요 시도별 매매가격은 전남(0.04%), 대전(0.01%), 대구(0.01%)는 오름세다. 경기와 광주, 세종은 보합한 반면 경남(-0.14%), 충남(-0.11%), 강원(-0.09%)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전국 전세가격은 지난해 말 시작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이나 역세권 대단지 등 거주 선호도가 높은 곳에는 전세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공급이 누적되거나 지역 경기가 침체된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은 0.04% 하락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0.07%, 0.09% 하락했지만 서울(0.04%)만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0.09%하락했다.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신규 공급이 많은 울산과 경산권, 강원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광주는 산업단지 인근이나 학군 선호지역에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상승했다.

주요 시도별 전세가격은 세종(0.65%), 광주(0.08%) 등에서는 상승했다. 제주와 대구, 전북은 보합한 반면 강원(-0.15%), 울산(-0.12%), 경남(-0.11%) 등은 하락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